

[보도자료] 200년 이상 역사 ‘세계 4대 도자기’를 로켓배송으로 쿠팡,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입점 확대

2024. 7. 26.

			
	로얄코펜하겐	웨지우드	마이센
태생 및 역사	덴마크 (1775년)	영국 (1759년)	독일 (1710년)
특징	100년간 덴마크 왕실 소유	일명 '여왕의 도자기'	유럽 첫 도자기공장 설립

coupang

- 프리미엄 키친관에 로얄코펜하겐, 웨지우드, 마이센, 헤렌드 선보여
- MZ 세대부터 주부 고객까지 혼수, 집들이 등 특별한 선물로 인기
- 쿠팡 관계자 “최상위 프리미엄 브랜드 ‘BCC’도 연내 입점 추진”

2024. 07. 26. 서울 - 와우회원은 앞으로 세계 4대 도자기 브랜드를 쿠팡 로켓배송으로 만날 수 있다.

쿠팡은 프리미엄 키친관에 덴마크 로얄코펜하겐·영국 웨지우드·독일의 마이센이 입점을 마쳤으며, 헝가리의 헤렌드가 연내 입점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200년~3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세계 4대 도자기’로 정평이 나 있다.

먼저 로얄코펜하겐은 200년 이상 오랜 전통의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다. 당대 최고의 장인이 손수 도자기에 그려 넣는 그림은 한 폭의 예술품으로 여겨진다. 2030 MZ 세대를 중심으로 ‘코페니’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국내 인기가 높다. 와우회원은 로얄코펜하겐의 블루와 블랙 플루티드 프리미엄 라인 상품을 빠른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도자기 브랜드 ‘웨지우드’는 영국 왕실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만큼 ‘여왕의 도자기’라고 불린다. 재스퍼 콘란이나 베라 왕과 같은 유수의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등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쿠팡에서는 아카이브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르네상스골드 라인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레드 컬러 도자기는 화려한 색감으로 파티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1710년 유럽 최초의 도자기 공장을 설립한 마이센은 '웨이브 퓨어' 라인을 쿠팡에서 선보인다. 도자기에 각인된 쌍검 모양의 마크가 트레이드마크다. 영국 왕실과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헤렌드의 '빅토리아' 라인은 꽃·과일·나비 문양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프리미엄 그릇은 가정 사용 용도부터 선물용, 전사용 목적으로도 구매가 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할 수 있던 프리미엄 정품 도자기를 쿠팡에서 빠른 익일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무제한 무료 배송과 30일 이내에 무료 반품도 가능하다. 쿠팡 와우회원들은 "유럽 여행이나 골동품 가게에서 하나씩 모으는 브랜드 그릇을 로켓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 "손님 접대용으로 제격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은 앞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도자기 라인 입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에르메스, 베르사체, 지노리1735, 드부이에 등 국내외 명품 주방용품 브랜드 50개 이상이 쿠팡 프리미엄 키친관에 입점했다. 쿠팡 관계자는 "일명 'BCC'라고 말하는 주방용품계 최상위 브랜드 '베르나르도' '바카라' '크리스토폴'도 연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향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브랜드와 협업하며 '고객 와우(WOW)'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